

현대 사회에서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상적인 대화에서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저속하고 저속한 표현이 점점 만연하여 점차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좋은 언어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는 이런 대화를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레알 대박!" "아, 씨—— 진짜 짜증 나." 이 문장들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언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우리는 외래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표현일 뿐 악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간결하고 혼합적이며 날카로운 표현에 익숙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태도, 문화, 사람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것을 점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언어개선 캠페인'은 이런 일상에서 출발해 남용되는 외래어, 막말을 살펴보고 우리말을 따뜻하고 또렷하게 되살릴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핫플레이스(핫플)” “진짜(레알)” 등의 외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외래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한국어 자체의 미적 감각과 독특한 표현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하면 언어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막말과 저속한 언어의 사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쓰는 막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 "꺼져" "너 미쳤어"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인터넷 환경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친 표현은 쉽게 언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거대한 구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모든 사람의 작은 행동만 필요합니다. 좋은 언어 문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습관의 작은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표현의 규범과 적절성을 추구한다면, 함께 더 성숙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좋은 언어 습관으로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